

축구대표팀 일본 꺾고 우승가자

오승환, 애리조나설 '모락모락'

한국축구, 동아시아컵 2연패 달성 여부 최종전인 일본전서 판가름

한국축구의 동아시아컵 2연패 달성 여부는 최종전인 일본전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북한과의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9일 중국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북한전에서 상대 지책골로 꺾이지 못한 승리를 챙기면서 1승1무(승점 4)를 기록했다. 북한은 2연패에 빠졌고 중국도 1무1패(승점 1)로 우승권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이번 대회 우승국은 개최국인 일본(승점 6)과의 최종전에서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해 러시아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선다.

양국 모두 이 대회를 월드컵 전초전으로 여기며 팀 조작용을 다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역대 전적에서 40승23무4패로 앞서 있다.

다만 동아시아컵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총 6차례 만나 1승에 그쳤다. 무승부 3회, 패배 2회다.

중국전 무승부로 승점 4에 머문 한국은 18일 일본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2연패를 이룰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한결 여유롭다. 무승부만 거둬도 정상에 오른다.

우승 상금은 출출하다.

일본은 대회 우승팀에게 남자 대표팀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 2위 15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3일 오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 필드에서 2017 EAFF E-1 챔피언십 일본전을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만 달러(약 1억6800만원)를 지급한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김신욱(전북)의 활약으로 재미를 봤고 북한과의 2차전에서는 진성욱(제주) 카드로 어느 정도 희망을 봤다.

상대가 수비에 주력할 때면 무너지는 공격력,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수비 불안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경기는 뒤로하고 앞으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겠다. 같이 월드컵에 나가는 상황에서 멋진 경기를 통해 일본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은 1차 북한전, 2차 중국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중국전에서 골 맛을 본 리그 특점왕 고바야시 유(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앞세워 한국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표팀 비히드 합탈호지치 감독은 중국전을 마친 후 "몇몇 선수들의 피로도와 부상이 걱정된다. 또 한국에는 좋은 선수가 아주 많이 있다. 그러나 지난 대회 실력과 동시에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정후, 연봉도 신인왕... 300% 오른 1억1000만원

고졸 루키 신인왕 이정후(18)가 무려 300%가 넘는 연봉 인상률을 기록하며 역대연봉 선수가 됐다.

넥센 히어로즈는 13일 고척 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에서 이정후와 기존의 2700만원에서 8800만원(307.4%) 인상된 1억1000만원에 2018년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작년 시즌 신인왕 신재영의 연봉 인상률과 같다. 팀내 최고연봉 인상률 타이 기록이다.

이정후는 "생각보다 빨리 역대 연봉을 받게 돼 신기하고 기쁘다.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1차 지명해줘서 넥센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장석 대표님과 스카우트팀,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준 감독님과 코치님, 또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데뷔 1년차에 풀타임으로 출전하면



서 프로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한편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신인이기에 조금만 잘해도 칭찬 해주고 주목 받았는데, 진짜 평가는 내년부터라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후는 올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2홈런 111득점 47타점 12도루를 기록했다.

전 경기에 출전한 5명 중 1명이며, 최다안타와 득점 부문 각 3위에 올랐다. 역대 신인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기록을 수립했다.

2007년 임태훈(당시 두산) 이후 10년 만에 입단 첫해 신인왕에 등극했다. 시즌 종료 후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정후는 "현재 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하며 비시즌 일정을 보내고 있다. 스프링캠프에 대비해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준비를 잘해서 내년 시즌은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BO리그 역대 최고 인상률 기록은 류현진(LA 다저스)이 보유하고 있다.

입단 첫째 2000만원이던 연봉이 2007년 1억원으로 경증 뛰며 400%의 인상률을 올렸다. 2006년 한화에 입단한 류현진은 첫해 30경기에 등판해 18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23을 기록하며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뉴시스

팬레그스포츠, "여전히 애리조나는 불펜 투수가 필요해"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오승환(35)은 내년에도 빅리그에서 뛸 수 것인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비롯한 여러 구단들이 오승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팬레그 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애리조나는 FA 오승환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구단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날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처도 "11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고 있는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에서 애리조나 구단이 오승환에 관심을 보였다"고 썼다.

팬레그스포츠는 "오승환은 애리조나에 딱 들어맞는 선수다. 애리조나는 트레이드를 통해 브래드 박스버거를 영입했지만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던 페르난도 로드리가 FA 자격을 얻어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애리조나는 불펜 투수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오승환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잔류 가능성은 두 미디어 모두 낮게 점쳤다.

세인트루이스포스트디스패처는 "오



승환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잔류 의지를 구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답변 없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팬레그스포츠는 "최근 베테랑 불펜 투

수 루크 그레거슨과 2년 계약을 맺은 세인트루이스가 오승환과 재계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썼다.

한국과 일본을 평정하고 미국으로 간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지난해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마무리 투수로 뛰던 트레버 로젠탈의 부진, 부상과 맞물려 오승환은 지난해 7월 초 마무리 자리를 꿰찼다.

올해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한 오승환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시즌 도중 중간계투로 밀려났다.

올해 오승환은 62경기에서 59%이닝을 던지며 1승 6패 20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다.

올해 부진했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실력을 보여준만큼 윈터미팅에서 복수의 구단들이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구단명까지 거론되면서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뉴시스

여자 축구대표팀, 내일 중국과 최종전... 이기면 1승2패로 3위

12년 만에 동아시아컵 우승을 노렸던 윤덕여호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15일 오후 4시 10분 일본 지바 소가 스포츠파크에서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전을 치른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8일 일본전 2-3패, 12일 북한전 0-1 패를 당했다.

여자 대표팀은 2005년 국내 대회 우승 이후 12년간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감독은 내년 4월 아시안컵에 대비, 이번 대회 선전을 다짐했지만 2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중국도 처지가 비슷하다.

1차전 상대 북한에게 0-2로 졌고 일본과 2차전에서도 0-1로 패하며 2연패를 기록 중이다.

중국도 첫 승 상대로 한국을 지목한 상태다.

한국은 남은 기간 지난 2차례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중국을 상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감독은 북한전을 마친 후 "세컨드 볼 준비과정이 미흡했다"며 "좀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

"마지막 중국전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남은 시간 회복을 잘하고 중국전을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수들도 첫 승이 간절하다. 주장 조소현은 "여기까지 왔는데 세 번도 두 질 수는 없다. 마지막 중국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1승이라도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면 3위로 대회를 마감하게 된다.

일본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여자 우승팀 7만 달러(약 7840만원), 2위 4만5000달러(약 5040만원), 3위 2만5000달러(약 2800만원), 4위는 1만 달러(약 1120만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